

착한 소비가
이웃을, 사회를,
지구를 살립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장자크 그로하 대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차 한 잔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간식으로 먹는 바나나 한 개를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공정무역운동은, 누구나 쉽게 일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DITOR 백선영



“윤리적 소비가 주는 ‘기쁨’은 무궁무진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 개선과 지구환경 보호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식품의 경우 대부분 유기농이므로 건강에도 좋고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장자크 그로하 대표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젠 우리에게도 제법 친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아직 까지도 공정무역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공정무역이란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 커피, 차, 목화솜 등을 생산할 때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가공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는 글로벌 움직임 중 하나이며,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러한 공정무역 활동을 전 세계140여 개국에 걸쳐 홍보하고 현실화시켜 나가는 비영리 기구이다. 34개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2011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소비자들로부터 공정무역 시장은 안전과 신뢰, 윤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으로 인식되며 주류시장에 자리잡았다. 제품의 종류는 커피, 초콜릿, 와인 등의 식품 외에 면, 꽃, 금, 공 등으로 다양하며, 3만 5천여 종의 제품이 140여 개국에서 공정무역 마크를 달고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9조 5천억 원어치의 판매량을 보였으며 그 숫자는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다고 그로하 대표는 말한다.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외에,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착한 소비’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무역 제품은 친환경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씨앗이나 원료가 GMO유전자조작인지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죠. GMO원료를 사용한 제품



1.2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 마련된 공정무역제품 쇼룸.
3.4 공정무역 제품은 커피와 차, 초콜릿 등 식품 외에도 에코백, 축구공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
5.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양을 망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의 발전, 건강한 삶의 지속, 지구 환경 보호에까지 동참할 수 있으니 윤리적 소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제품은 ‘대안’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소비,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다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한 발자국 늦긴 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소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공정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대부분은 공정무역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정무역 제품 판매량은 약 59억에서 1년 만에 189억으로 상승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폭을 보였다(2015년 기준). 올해 판매량은 기존 대비 약 30~4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장자크 그로하 대표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강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무역 마크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학교, 종교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매출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죠.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은 판매 채널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해 근처 슈퍼에서도 누구나 공정무역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공정무역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제품을 생산중인 국내의 업체는 10군데 정도이며,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거나 매입해 판매하는 할인점, 백화점, 유통기업은 홈플러스, 신세계푸드시스템, 스타벅스, 원인터시스템 등 35~40개 정도에 이른다.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B2B 공정무역 인증제품 사이트(b2b.fairtradekorea.org)를 통해 3만 2천여 종의 공정무역 인증된 완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소에도 제품을 전시한 오프라인 쇼룸을 운영하며 업체들이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아직까지는 커피, 차, 초콜릿 등의 식품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공정무역제품의 카테고리는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무역 면화를 사용한 에코백이나 페이스마스크, 축구공 등은 문구숍에서도 충분히 유통시킬 수 있는 아이템에 해당된다. 동네 문구숍에서도 공정무역제품을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않은 않게 느껴진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국내 공정무역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로 2011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특히 국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과 기업들의 공정무역 참여를 용이하게 지원하는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www.fairtradekorea.org